

# 삼한사온·눈...올 겨울 '겨울답다'

## 광주·전남 3개월 기상전망

올 겨울 광주·전남은 지난해보다 춥고, 삼한사온의 전형적인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거의 내리지 않았던 눈은 많지는 않지만 다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급으로 따뜻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12월과 1월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은 기후감시 요소와 전 세계 기후예측모형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기상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2020년 겨울철 전망'을 내놓고 이 같이 예보했다.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감시 요소들 간에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있어 예측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지난해 겨울에 비해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 겨울철 날씨를 가능하는 기상 요소 중 한기가 남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로는 라니냐 상태와 북극 바다얼음(해빙) 등이고, 겨울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온난화 경향과 성층권의 서풍 편차 등이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에는 라니냐가 발달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라니냐가 발달하면 동태평양에 하강기류가, 북서태평양에는 상승기류가 발달해 동아시아지역의 대륙고기압 발달에 영향을 줘 초겨울에 한반도의 기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북극 해빙(바다얼음)은 현재 역대 가장 적은 면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관측결과이다. 이는 북극 고온 현상과 관련 있어 북극 상층의 제트기류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우리나라에 삼한사온 같은 주기적인 한기를 유발시키는 조건이 된다는 게 기상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 지난해보다 춥고 12~1월 서해안 많은 눈 내릴 듯 주기적·장기적 한파 가능성...강수량은 평년 수준

반면 겨울철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지역 눈과 성층권 기압계의 강한 서풍 편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달별로 살펴보면 1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고, 1~2월은 평년과 비슷한 겨울철 기온으로 분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또는 장기간 한파가 닥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월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다. 평균기온은 평년(3.4~4.4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1월은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

1월 평균기온은 평년(1.0~2.0도)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19.4~36.4mm) 수준이겠다. 2월에는 찬 공기의 세력이 차차 약화되면서 기온이 오르겠

으나,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 밤과 낮의 일교차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평균기온은 평년(2.3~3.7도)과 비슷한 수준이고, 강수량도 평년(30.2~50.2mm)수준에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요소들의 현 상태를 종합하면 평균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난해보다는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기적 또는 장기적 한파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기상요소들의 변화 추이를 계속 주시해가며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횡단보도 참변' 애도  
삼남매 가족이 지난 17일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2살 여아가 숨진 광주시 북구 운암동 교통신호 현장에서 23일 주민들이 애도의 국화꽃을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코로나에 '집콕' 늘어서? '20대 도박' 증가

## 광주·전남 치유센터 상담자 중 1/3 차지... 지난해보다 1.4배 늘어

광주지역 고교 2학년인 A군은 주변 친구를 통해 '스포츠토도'에 손을 대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계속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5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빚 독촉을 피해 올해 이사를 세번이나 하기도 했고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빚을 갚기는 쉽지 않았던 A군은 범죄에까지 손을 뻗게 됐다.

계인의 계정을 저렴하게 사서 레벨을 올려 다시 파는 것으로 돈을 조금씩 벌었고, 그렇게 하다가 돈은 받고 계정을 넘겨주지 않아서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부모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A군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찾게 됐다.

광주·전남에서 '코로나 19' 이후 도박에 손을 댔던 20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광주·전남 지역민의 도박문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박중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기간(1월1일~10월31일) 센터 치유재활서비스 이용자 1212명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양상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대 연령층의 도박문제가 특히 심각했다. 지난해 대비 센터를 찾는 20대 지역민의 수는 1.4배 가량 증가했으며, 전체 상담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도박중류로는 카드 및 주식으로 인한 도박문제 비중이 증가했으며, 불법적인 형태의 오프라인 카드 도박 비율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도박이 크게 유행하고 있지

만, 광주·전남에서는 특이하게 오프라인 도박이 증가했다.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양상도 증가세였다. 10대(3.6배, 494만원~1810만원)와 20대(1.3배, 6700만원~8440만원)의 도박 손실액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으며, 5000만원 이상의 손실액 비율 또한 지난해 대비 1.2배 증가했다.

도박문제로 인한 자살 사고도 호소하며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지역민이 3배 증가했으며,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도박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민 또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경 센터장은 "코로나 19의 종식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변화의 여파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문제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해 지역 관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면서 "센터 전 직원은 코로나19와 도박문제 간의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무상급식비 1145억 확보 광주교육청 급식 질 높이기로

광주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1145억원을 확보, 각급 학교 내 급식의 질을 강화한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무상급식비 1145억원을 확보, 보다 나은 식재료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별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40원 인상(2.95%)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부분 등교 등 일선 학교 급식비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 학교급별 극소수 식품비 단가 구간(초·중·중·수 50명 이하, 고 150명 이하)을 신설했다. 이는 부분 등교로 인해 급식 식재료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공·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신규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유아 1인당 친환경 식재료비 300원, Non-GMO 식재료비 100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유아기 성장 발달과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이진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 오늘부터 고3 원격수업 전남교육청, 방역단계 격상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24일부터 지역 내 고등학교 3년생들의 수업방식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월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학사운영 조정안을 긴급히 마련했다.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일반 시험장 학교는 오는 27일부터, 별도 시험장 학교와 비시험장 학교는 오는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원격수업을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들어간 순천의 경우 유·초 3분의 1 등교, 중학교·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권장하고 있다. 특수학교인 순천 선혜학교는 2분의 1이 등교 중이다.

이외 지역은 24일 이후부터 밀집도 3분의 2 등교를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초중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 학교, 초 1·2학년은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상피제 위반' 고교 교사 적발

고등학교 1학년 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광주지역 고교 교사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광주 광일고 A교사는 지난 4월 초 광주 B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을 광일고로 전학시켰다.

이는 교육 당국이 '서울 속명여고 쌍둥이 딸의 내선 사건'과 관련해 2018년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상피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립고교의 교원은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 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해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A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직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전학시킨 것은 내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교육자로서 대단히 부도덕하다"며 "허위보고를 한 해당 학교에 행·재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교사가 같은 재단 중학교로 전직하는 것보다는 딸을 원격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격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